

배포일시	2011.07.04.(월) 11:00 (총5매)	보도시점	즉시
담당부서	대전지방기상청 인천기상대	담당자	대장 박남철
		전화번호	032-761-9969

## < 1개월 전망 (7월 중순 ~ 8월 상순) >

— 무더운 날이 많겠음 —

(7월 중순) 기압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나겠음.

(7월 하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이 많겠음.

(8월 상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이 많겠고,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겠음.

### 【 1개월(7월 중순 ~ 8월 상순) 전망 요약 】

전국	평균기온	강수량
7월 중순	평년(23~26℃)보다 높겠음	평년(69~173mm)과 비슷하겠음
7월 하순	평년(24~27℃)보다 높겠음	평년(51~135mm)과 비슷하겠음
8월 상순	평년(25~28℃)보다 높겠음	평년(47~139mm)과 비슷하겠음

서울·인천·경기	평균기온	강수량
7월 중순	평년(23~25℃)과 비슷하겠음	평년(128~159mm)보다 많겠음
7월 하순	평년(25~26℃)보다 높겠음	평년(108~135mm)보다 많겠음
8월 상순	평년(25~27℃)보다 높겠음	평년(88~139mm)과 비슷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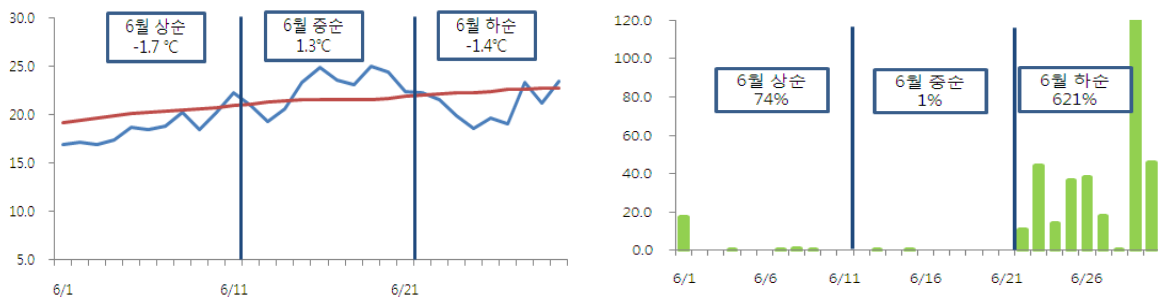
### 1. 날씨 전망

-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온도 상태) 평년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해수면 온도 편차 : 5월 -0.3℃, 최근(6월 넷째 주) 0.0℃
- (7월 중순) 기압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7월 하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이 많겠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대기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있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 (8월 상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이 많겠고,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대기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호우가 있겠으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2. 최근 날씨 동향

- (6월 상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낮았음. 1일에는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렸으며, 10일에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며 제주 및 남해안 지방에 영향을 주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음.
- (6월 중순) 동서고압대의 영향으로 맑고 더운 날씨가 많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음.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여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 11일, 15~16일, 19일에 장맛비가 내렸으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
- (6월 하순) 장마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음. 22~26일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고, 26~27일에는 제5호 태풍 “메아리(MEARI)”가 서해상으로 북상하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28~30일 다시 장마전선에 의해 중부지방과 남해안 지방에 비가 내렸음. 장마전선에 의한 강수구역이 좁게 형성되어 오르내리면서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났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낮았음.



최근 1개월 평균기온(좌)과 강수량(우)의 일변화(2011.06.01 ~ 06.30)

- ※ 첨부 1 :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7월 중순~8월 상순)
- ※ 첨부 2 : 최근 10년간의 특이 기상 사례(7월 중순~8월 상순)

### 【 알 림 】

- 1개월 전망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행정과정책→보도자료→소속기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1개월 전망은 2011년 7월 13일 오전 11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기후통계자료에 대한 문의는 기상청 기상자원과(02-2181-0887)로 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1 ] 최근 10년간의 기후특성(7월 중순 ~ 8월 상순)

### ○ 평균 기압계

- 7월 중순에는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 전면에 형성된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의 남북을 오르내리며 영향을 줌. 7월 하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점차 확장하여 우리나라를 덮게 되고, 장마전선은 만주지방으로 북상하여 약화되거나 소멸됨. 이후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으며 무더위가 시작됨.
-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이 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하여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 나타남.
- 북태평양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음.
- 장마전선이 만주지방으로 북상하거나 소멸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남.
- 대기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나타남.

### ○ 바람

- 전반적으로 남서풍이 우세함.

### ○ 태풍

- 최근 10년간 연평균 23개의 태풍이 발생하여, 7월 하순~8월 상순에는 0.8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7월 중순:0.3개, 7월 하순:0.1개, 8월 상순:0.4개)을 줌.

### ○ 폭염과 열대야

- 폭염과 열대야는 각각 평균 5.9일, 4.1일 나타나며 7월 하순부터 크게 증가함.  
※ 폭염/열대야 : 7월 중순 0.6일/0.9일, 7월 하순 2.3일/1.4일, 8월 상순 3.0일/1.8일

### ○ 우리나라의 평균기온과 강수량

- 평균기온 : 25.4℃ (7월 중순 24.3℃, 7월 하순 25.7℃, 8월 상순 26.4℃)
- 평균 강수량 : 298.2mm (7월 중순 139.8mm, 7월 하순 74.0mm, 8월 상순 84.3mm)

## [ 첨부 2 ] 최근 10년간의 특이기상 사례 (7월 중순 ~ 8월 상순)

### ○ 고온현상

- (2010년 7월 하순~8월 상순) 평년보다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6.9일, 10년 평균대비 3.2일)가 지속되었음. 특히 최저기온이 높아 기간 중 계속해서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음. 전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관련 상품의 매출이 대폭 신장(전년 동기 대비 에어컨 120%, 선풍기 75% 매출 증가)되고, 해수욕장이 장기간 호황을 이루는 등의 경제적 효과도 컸음.
- (2008년 7월 중순)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이 발해만 부근까지 북상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져 남부 지방과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1.6일, 10년 평균대비 +1.0일)과 열대야(2.0일, 10년 평균대비 +1.1일)가 자주 발생하였음. 강릉과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닭이 집단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6년 8월 상순) 북태평양고기압이 북한까지 확장하면서 전국적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나 전국 평균 최고기온이 33.6℃를 기록하였으며, 내륙에서는 36~38℃까지 기온이 상승하였음. 더위로 농산물의 출하량이 줄어들어 채소값이 올랐으며, 가축의 폐사가 속출하였음.
- (2004년 7월 하순~8월 상순) 전국적으로 폭염이 자주 발생(11.6일, 10년 평균대비 +6.3일)하였으며,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7월 24일 강릉 최저기온 28.8℃ 기록)가 자주 발생하여, 평균 최고기온 33.0℃(최근 10년 평균대비 +2.4℃)를 기록하였음. 특히 7월 30일~31일의 기온이 높았음. 7월 30일에는 밀양에서 38.5℃를 기록하며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였으며, 7월 31일에는 전국 평균최고기온이 34.4℃(평년편차 +3.4℃)로 7월의 전국 평균 최고기온으로는 가장 높았음.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전국에서 닭 수천마리가 폐사하였으나, 에어컨과 냉장고의 판매량이 각각 20%, 10% 증가하였으며, 빙과·맥주도 매출이 증가하였음.

## ○ 집중 호우

- (2009년 7월 12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져 12일 이천 지역에 304.0mm의 비가 내려 최근 10년 중 7월 일강수량 최고를 기록하였고 그밖에 수원 272.5mm, 양평 243.0mm를 기록하였음.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되었으며, 농경지 침수와 도로 유실 등의 피해가 속출하였고 하천 범람에 대비해 수원과 화성의 500여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였음.
- (2006년 7월 9~29일) 장마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62명이 사망·실종되었으며, 1조 8천여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음. 특히, 9~10일에는 장마기간 중 태풍 ‘에위니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진주 286.5mm, 창원 270.5mm, 여수 253.5mm)가 내렸음. 또한, 7월 15~16일에는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서울·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16일 양평 285.0mm, 홍천 255.5mm, 원주 240.0mm, 동해 211.5mm, 인천 202.5mm)가 내려 7월 일강수량 극값을 경신한 지역이 많았음.
- (2002년 8월 상순) 평균 강수량은 293.2mm(평년대비 363%)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으며, 특히 8월 6일~7일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일강수량 극값을 기록(6일은 봉화 241.5mm, 임실 208.5mm, 7일은 양평 320mm, 완도 294.0mm, 이천 279.0mm, 제천 275.5mm, 천안 240.5mm, 충주 227.0mm, 영월 226.0mm, 봉화 211.5mm, 수원 203.0mm)한 지역이 많았음. 1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175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 저온현상

- (2003년 7월 중순~8월 상순) 강하게 발달한 오호츠크해 고기압과 평년보다 덜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잦았고,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음. 6월부터 시작된 저온현상은 8월까지 이어졌음.